

BTS 제이홉 올해도 5·18 추모...광주정신 세계에 알렸다

팬이 커뮤니티에 '062-518' 올리자 제이홉이 기도하는 이모지로 추모 4시간만에 1만3000개 이상 추모 댓글 이어지며 지구촌 곳곳 5·18 전파

방탄소년단(BTS) 제이홉(본명 정호석·사진)이 5·18민주화운동 41주년에도 추모의 뜻을 전 세계 팬들에게 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BTS멤버인 제이홉은 지난 18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에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이모지(이모티콘과 이미지의 합성어·사진)를 올렸다.

위버스는 지난 2019년 6월 개설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BTS를 비롯한 22명(팀)의 아티스트들이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위버스 내 BTS커뮤니티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가입자만 10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제이홉은 지난 18일 오후 5시에 한 팬의 '062-518'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2분 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양의 이모지를 올려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마음을 전했다. '062-518'은 지난 2015년 발표된 BTS 앨범 '화양연화 pt.2'의 수록곡 '마 시티'(MA CITY) 가사 중 일부다. 광주가 고향인 제이홉이 직접 작사하고 부른 것으로 '062'는 광주의 지역번호이고 '518'은 5·18 민주화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Ma City'의 제이홉이 부른 '날 불려면 시간이 7

시 모여 집합, 모두 다 놀러라 062-518'이라는 가사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전라도를 비하하는 표현인 '7시'에 뒤이어 5·18 민주화운동을 불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언급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게 평론가들의 설명이다.

위버스는 해당 아티스트가 글을 쓰면 가입 회원 모두에게 알림 기능으로 공지한다.

제이홉의 댓글 이후 불과 4시간 만에 전 세계 가입자들로부터 다양한 언어로 1만 3000개 이상의 추모 댓글이 주르륵 올라왔다. 20일까지 올라온 댓글만 1만 7000개가 넘었다.

한 팬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를 다시금 알려줘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들"이라고 남겼다.

또 다른 팬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광주 출신이죠, 어제 학교에서 계기 교육을 받았어요. 그분들께 감사하더라고요"라는 댓글도 달았다.

"마시티" 노래에 감사합니다.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 광주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라는 외국인의 댓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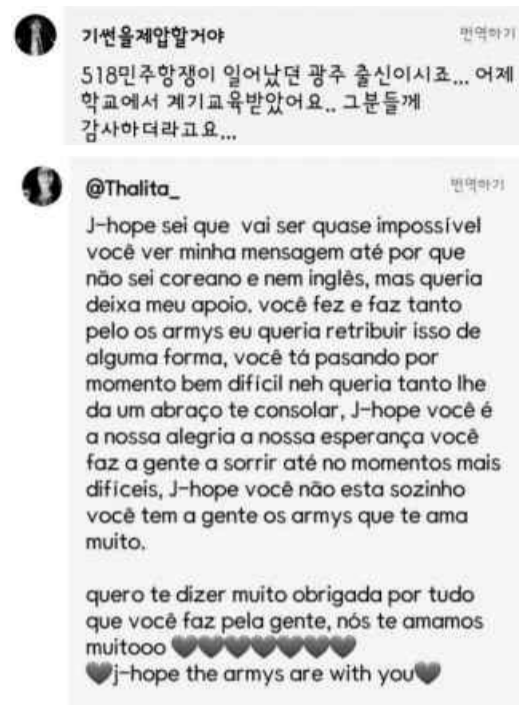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국가 팬들을 위한 설명글도 잇따랐다. 한 팬은 스페인어로 "5월 18일은 한국에서 의미있는 날입니다. 1980년



41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BTS팬이 글로벌 팬 커뮤니티에 '062-518'이라고 남긴 글에 제이홉이 추모의 이모지를 남겼다.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5·18민주화운동이라고 부릅니다"라는 설명 글을 올리는가 하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버전 등도 줄을 이었다.

제이홉은 지난 40주년에도 "우리 호비 고향...광



제이홉이 추모의 댓글을 남기자 전세계의 팬들이 추모의 뜻을 댓글로 남기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의 글이 다양한 언어로 소개되고 있다.

주. #MemorialGwangju #Memorial518 #518 DemocratizationMovement"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추모 포스터에 두 손을 모은 이모티콘으로 화답, 눈길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이 글에는 추모의 댓글이 5735개 달렸었다.



제이홉의 한 팬은 "BTS 팬 클럽인 아미들은 '5월 18일은 마시티 듣는 날'로 여기고 올해도 SNS 등에 '마 시티'의 제이홉 파트를 공유하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피해자 가족들 석달 넘게 매일 엄벌 탄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낸 20대 징역 8년 선고

"존경하는 판사님, 그날은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2021년의 첫날이었습니다. 웃으며 집을 나섰던 동생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눈을 감아버린 제 동생... 딸과 동생을 잃은 저희 가족들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지난 1월 1일 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자 A씨(27) 차량에 들이받혀 숨진 B(여·27)씨(광주일보 1월 3일 6면) 가족들은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B씨는 이날 친구 집들이를 갔다가 귀가하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자신만의 피부관리 습을 열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오랜 준비과정을 거

쳐 가며 오픈을 한 날 남겨놓고 있었다.

가족들은 A씨가 구속되던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을 가지 못하게 되는 날에는 등기로 보냈다. 반성문을 써 감형받았다는 판례를 본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정씨 언니는 "과거 판례를 찾아보니 반성문을 쓰면 감형되곤 했더라, 그래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10장 쓰면 그 보다 많은 탄원서를 써서 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하루하루 일기스듯, 피워보지도 못한 삶을 허망하게 끝낸 딸, 동생에 대한 슬픔, 그리움, 안타까움을 고스란

히 담았다. 가해자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한 채 써내려간 탄원서가 있는가 하면, 눈물을 쏟으며 쓴 탄원서도 있었다. 정씨 언니는 "탄원서를 쓴다고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 뿐"이라고 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0년을 구형했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자백, 반성하고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측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에다, 음주운전으로 1차 사고를 내고 제한속도(50km)를 넘는 130km 이상 속도로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2차 사고를 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해자 가족은 매일 탄원서를 작성,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현장을 지켜본 피해자 친구의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빛원전 6호기 4개월 만에 재가동

한빛원자력 발전소 6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급)가 다시 가동에 들어간다. 6호기는 지난 1월 7일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가 4개월여 만에 재가동한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안위는 이

날 한빛원전 6호기의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 재가동 전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자로의 재가동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는 게 원안위 설명이다.

원안위는 이번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증기발

생기와 관련, 부식에 강한 재질(Alloy 690) 세관으로 교체했다. 원안위는 배관 용접검사, 증기발생기 세관 비파괴검사 및 누설시험 결과 등도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검사, 재가동 이후 교체된 증기발생기에 대한 성능검사 등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양 절단기 생산업체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

광양의 한 절단기 생산업체에서 40대 남성이 기계 설비에 끼여 숨졌다.

20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광양시 태인동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A(43)씨가 컨베이어벨트와 절단기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3인 1조로 작업을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작동중인 기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안전 수칙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자격 조합원 문제' 나주배 원예조합장 선거 무효 정당

광주고법 항소심 판결

항소심 법원이 지난 2019년 치러진 나주배 원예농업협동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들어 조합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2부는 나주배 원예농협 조합원 등이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등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지난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조합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당선자와 상대 후보간 득표차가 25표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무자격 조합원들이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27명이 투표, 농협법을 위반했다"며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현재 기존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최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이 확정된 바 있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점을 반영, 오는 6월 2일 재선거를 실시기로 했고 현재 두 명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중개 환영. 010-3605-5000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오피스텔</div> 신축 부지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거문도, 싼땅</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거문도</div> 별장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매매 -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매매 - 평당 30만원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대지 221평, 건물 21평 ▶ 방 2, 화 2, 거실, 주방 ▶ 바닷가 최고 전망 ▶ 텃밭, 정자, 내부시설 ▶ 매매 - 2억2000만원